

## 망가진 보수정권... 민심은 이미 “교체”

### 긴급진단 빨라진 대선시계

#### 정권교체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으로 정국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3차례에 걸쳐 조기 대선의 관련 포인트를 조명해본다. <관련기사 3면>

조기 대선에 치러진다면 개혁 진보 진영인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권이 ‘국정농단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실상 재집권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분당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간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보수 세력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의 보수 정권 기간 동안 민생 경제가 더욱 피폐해진 것도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민심의 분노에는 고단한 민생의 분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촛불 집회를 계기로 기록권 세력인 보수 정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민심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높아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오히려 야권의 오만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촛불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못했고 포스트 탄핵에 대비한 국정운영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박근혜 국정농단·탄핵으로 새누리 재집권은 어려울 듯 야권, 오만 경계... 양자나 3자나 다자나 대선구도 주목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당당한 리더십보다는 광장의 민심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시대적 코드를 맞추는데 실패하면서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잠룡들 가운데 누구도 지지율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야권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누구도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풍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선 등의 과정을 거치면 야권 주자들이 정리되면서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에는 조기 대선 정국의 유동성이 크다. 조기 대선에 보수 대 진보의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도 확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구불구불 해남 두륜산 미로공원

6일 오후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내에 조성된 미로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출구를 찾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송정역 뒤편 4차선 도로 개설...국비 133억 확보

### 금호타이어 입구서 980m

###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될 듯

광주송정역 뒤편 도로 개설 사업 착공을 위한 국비가 확보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 활동했던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광주송정역 뒤편 4차선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133억원

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확보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송정역 지하차도 금호타이어 입구에서 신덕마을로 이어지는 곳에 길이 980m,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송정역 주변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과 역사 주변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매우 증가했으나 역 앞 도로인 상무대로 이외에 간선도로 하나 변하지 갖추지 못했다.

송정역 뒤편 도로가 개설되면 광주 전 지역에서 신호대기도 거의 없이 금호타이어 공장을 지나 곧바로 송정역 후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광주시의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도 송정역 뒤편 도로가 개설되면 역사 앞 도로인 상무대로의 교통혼잡도 개선으로 연간 최대 107억원의 교통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0.6에서 20.3km

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김동철 의원은 “SRT 이용객까지 더해지면서 송정역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비박계 신당 도모...새누리 ‘두 동강’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 및 신당 창당을 도모를 검토하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 창립총회를 여는 등 분당 국면으로 치닫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비주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가 13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이날 회동 후 모임을 발전적 해체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이 모임은 당장은 당내 투쟁에

주력하겠지만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친박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은 이날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정갑윤 의원, 이인제 전 의원, 김관용 경

상북도지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배신의 정치, 분열의 행태를 타파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것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당이 양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성장하는 광주  
기업

**성공 비즈니스로 通하는 광주**

**빛의 도시 광주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찬 빛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성공으로 빛나는 도시 광주!  
광주로 오십시오!

- 저렴한 첨단도시형 산업단지
- 특화된 기업지원형 R/D특구
- 풍부한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 차별화된 광주만의 투자인센티브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Tel. (062) 613-4081~4 Fax. (062) 613-4069

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